

『소년』에 드러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 - 원단군교 단군 인식의 전유 양상을 중심으로 -

박성혜**

- I. 서론
- II. 최남선의 단군 지칭어 변화와 대황조단군성신의 대두
- III. 『소년』에 드러난 대황조와 대황조의 영
- IV. 원단군교 단군 인식의 전유를 통한 낭만적 민족주의의 구성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최남선이 편찬했던 『소년』을 중심으로, 이 텍스트에 드러난 단군 지칭어의 변화에 주목하여 최남선이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한 양상을 밝힌 것이다. 최남선은 원단군교의 대황조단군성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년』에서 단군 표상을 구체화한다. 그는 대황조와 대황조의 영을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태백산에 내려온 국조로서 특징을 강조할 때는 대황조를 사용했다. 만물의 양육자이자 신으로서 속성을 언급할 때는 대황조의 영, 대주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최남선이 『소년』에서 민족명으로서 조선을 강조하고 창조-타락-회개-구원과 같은 민족 서사를 구현하는 것도 최남선이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텍스트를 서술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소년』에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확인하는 본고의 작업은 최남선이 『소년』에서 단군 표상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하였던 여러 방식들이 본질적으로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한 것에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370).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기인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최남선의 단군론이 지니는 보편성과 낭만성이 그의 초창기 단군 인식부터 내재되어 있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핵심어: 최남선, 소년, 원단군교, 대종교, 단군, 대황조, 대황조의 영, 1910년

1. 서론

본고는 1910년대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 아래, 최남선이 편찬했던 잡지인 『소년』을 중심으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텍스트에 드러난 단군 지칭어의 변화에 주목하여, 최남선이 원단군교¹⁾의 단군 인식을 전유한 양상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년』에 수록된 텍스트 중 단군을 언급한 것을 선별하고, 최남선의 단군 및 단군 조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소년』의 단군 관련 텍스트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사사론」이나 「계고차준」과 같이 어느 정도 ‘논문’의 형태를 갖춘 글을 대상으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고구한 연구들이 있다. 두 번째, 「해상대한사」나 「태백산시집」을 중심으로 『소년』과 『청춘』에 드러난 최남선의 민족 인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군을 언급한 것이 있다.

전자의 연구는 주로 역사학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로 『청춘』에 수록된 「계고차준」에 드러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고찰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소년』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전성곤은 당시 일본의 잡지와 비교하며 『소년』의 국민 만들기의 작업을 검토하였다.²⁾ 본격적인 논의는 류서현이 진행하였다. 그는 신채호의 「독사신론」과 최남선의 「국사신론」을 비교하여 단군 및 고조선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

1) 나철이 1909년 1월에 공포했던 단군교는 후에 대종교와 정훈모의 단군교로 분립된다. 따라서 분립 전의 단군교와 분립 이후의 단군교를 구분하기 위해 분립 전의 단군교를 원단군교라 지칭할 것이다.

2) 전성곤, 『日帝下文化ナショナリズムの創出と崔南善』, J&C, 2005, 42~68면; 「육당 한국학을 찾아서」, 동서문화사, 2016, 64~93면.

다. 이에 따르면 신채호의 단군 인식은 단군을 실존인물이며 국조로 이해하는 대중교적 단군인식과 차이가 없었으며, 최남선도 『해상대한사』에서 단군조선을 화려하게 서술하기는 하였지만, 『계고차존』에 이르러서야 보다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단군과 단군조선을 인식했다.³⁾ 이처럼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년』의 단군 관련 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며, 최남선의 1910년대의 단군 인식은 『청춘』에 수록된 『계고차존』의 분석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년』에 드러난 단군 인식을 다룬 논의의 경우에도, 『국사사론』의 분석에 치중되어 있으며 『소년』에 수록된 다른 텍스트에서 포착되는 최남선의 단군 인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대로 최남선은 『청춘』에 『계고차존』을 신기 이전부터, 신채호, 김교헌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론 역시 잘 알고 있었다.⁴⁾ 또한 그는 곳곳에서 단군과 고대사 강연도 진행하고 있었다. 즉 『계고차존』 탈고 이전부터 최남선은 단군에 대한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소년』과 『청춘』에 단군을 언급한 텍스트들을 주기적으로 싣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년』에 수록된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학 연구자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 최남선의 단군 인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잡지의 근대성이나⁵⁾ 시조의 수용,⁶⁾ 근대시의 형성과정⁷⁾ 등이 주된 논점이 되었다. 이런 연구사적 흐름 속에서 주로 『해상대한사』나 『태백산시가』를 중심으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3) 류시현, 「한말 일제 초 단군과 고조선 인식의 체계화」,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2015, 182~184면.

4) 정영숙, 「〈계고차존〉을 통해 본 최남선의 고대사론」, 『규장각』 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2; 이영화, 「최남선의 단군론의 전개와 그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5, 한국사학사학회, 2002.

5) 권보드래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대출판부, 2007; 문성환, 「최남선의 글쓰기와 근대 기획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전용숙, 「1910년대 최남선 잡지 서사의 근대적 가치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등.

6) 윤설희, 「최남선의 고시조 수용작업과 근대전환기의 문학인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장만호, 「한국 근대 산문시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최현식, 『최남선 · 근대시가 · 네이션』, 소명출판, 2016.

먼저 자국학의 형성과정이나 문화사 서술의 관점에서 『소년』에 수록된 텍스트를 연구한 경우가 확인된다. 류준필은 1910년대에 자국학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소년』에 수록된 「해상대한사」나 「국민사행의 표준」 등을 살펴보았다. 그는 최남선이 ‘지고지대한 지강지정한 표준’을 가진 조선 민족을 발견한 것을 보편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가 이 시기에 우주=생명의 시공간적 전체성 속에서 조선학을 받아시켰다고 평가하였다.⁸⁾ 그리고 김현주는 역사, 문화, 민족을 규정해 간 과정을 통해 문화사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면서, 최남선이 「해상대한사」에서 민족을 역사와 문화의 소유자로 부상시켰지만, 역사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했고, 단순하고 결정론적인 태도로 문화를 인식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⁹⁾ 위의 논의들은 「해상대한사」나 「국민사행의 표준」 등에 드러난 보편성을 자국학이나 문화의 관점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의의 특성상 이 보편성의 기저에 있는 최남선의 단군 인식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

이후 단군 표상을 중심으로 『소년』에 수록된 텍스트들을 논의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최현식은 『소년』에 수록된 시(가)를 근대성의 한계와 시조로의 후퇴로 평가하는 흐름을 비판하며, 최남선의 ‘민족 지키기’에 주목한다. 그는 최남선이 민족을 심미화하고 이상화하는 것을 문화적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소년』에 수록된 그의 시가를 ‘신대한에서 대조선으로’ 표상이 전환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⁰⁾ 윤영실도 최남선이 『소년』에서 ‘조선’이라는 민족명을 부각시키고, 단군, 태백, 국풍이라는 표상을 통해 조선 민족의 시간, 공간을 형상화하였다고 보았다.¹¹⁾

위의 연구들은 근대성을 기준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소년』의 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 텍스트에 구현된 단군 표상의 형상화 방식과 그 효과를 민족의 형성과정과 함께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역시

8) 류준필,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39~44면.

9) 김현주, 「문화사의 이념과 서사 전략 1900-20년대 최남선의 문화사 담론 연구」,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230~234면.

10) 최현식, 「신대한과 대조선의 사이 (1)」,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신대한과 대조선의 사이 (2)」,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11) 윤영실, 「국민과 민족의 분화-『소년』지에 나타난 ‘신대한’과 ‘대조선’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최남선의 언술에 수반된 원단군교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남선의 단군 인식에 드러난 특징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경우가 확인된다. 4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최남선이 단군이나 단군조선의 인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표상들은 결국 ‘신성한’ 단군 및 단군조선을 구체화한다. 기왕의 연구들은 이를 최남선만의 독특한 면모¹²⁾로 평가하거나 단군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를 넘나드는 것으로 파악한다.¹³⁾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들은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고려하면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년』에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가 서술한 여러 텍스트에서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최남선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 본고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년』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들에서 드러난 단군 지칭어의 변화를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과 견주어 살펴봄으로써 해당 단어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먼저 선행 연구의 흐름에서 보듯 『계고차존』의 분석에만 기대어 구성된 1910년대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재고할 수 있다. 1910년대의 최남선의 ‘보통명사 단군’ 인식은 『계고차존』에 제한된 것으로, 이 글은 자기 검열이 강하게 작동된 장편의 글, 즉 사론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소년』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들은 그 장르가 다양하며, 최남선의 단군 인식이 『계고차존』보다 자유롭게 표현된다. 또한 이 텍스트들은 『계고차존』보다 ‘먼저’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남선이 고대사론을 구축하기 전에 어떠한 단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질문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 즉 단군 표상을 활용한 최남선의 민족주의적 기획을 당대의 단군 인식과 함께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원단군교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남선에게 미친 대종교의 영향력은 그동안 『계고차존』과 김교헌의 『신단설기』(1914)의 비교, 이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으로서 조선광문회(朝

12) 윤영실, 앞의 논문, 92~93면.

13) 최현식, 앞의 논문, 2007, 277면 각주 38번.

鮮廣文會)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정도가 지적되었다.¹⁴⁾ 이는 최남선의 1910년대 단군 인식에 대한 논의가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소략한 중에서도 그나마 1910년대 후반의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이다. 그런데 정작 이보다 선행하는, 1910년대 초반에 출간된 잡지 『소년』에서 원단군교나 대종교의 영향력을 지적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최남선이 『소년』에 수록한 텍스트들에서 원단군교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단순히 사회적 배경이 아니라, 그가 구성한 텍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최남선의 원단군교 단군 인식의 전유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자 동시에, 1910년대 최남선의 민족의식, 단군론의 구성 과정을 재고하는 작업이며, 이후에 그가 보여주는 단군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위에서 상술한 작업을 단순히 『소년』에 수록된 단군 지칭어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작업이 두 가지 이유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이 시기를 다룬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개념어의 번역과 수용 과정을 꼼꼼히 고찰함으로써 이 시기에 유통되었던 새로운 개념어를 소개하고, 이 개념어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 논의들이 적지 않다.¹⁵⁾ 따라서 본고에서 대황조나 대황조의 영이라는 단군의 지칭어를 통해 원단군교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 역시 해당 단어의 사용이 지닌 의도를 검토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대황조라는 단어의 배타성을 지적할 수 있다. 『소년』에 수록된 시가의 특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로 대황조가 있다. 그런데 대황조는 사실 대종교도들 사이에서 향유되던 단어였다. 이 점은 기존의 논의에서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으며, 대황조는 단순히 단군에 대한 지칭어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황조라는 용어가 근대계몽기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환손’이라는 필자가 <우리한국인민의 종족 이름을 변명함>¹⁶⁾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4) 정영숙, 앞의 논문, 167, 175면; 오영섭, 『조선광문학회연구』, 『한국사학사학보』 2, 한국사학사학회, 2000 등.

15) 일레로 권보드래, 『근대 초기 민족개념의 변화』, 『민족문화사연구』 33,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188~212면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사용한 사례와 나철이 장지연에게 보내 기사화했던 <단군대황신영적수 탐>¹⁷⁾, 『권업신문』의 대종교 관련 기사¹⁸⁾ 및 『신한민보』의 개천절 축하 기사¹⁹⁾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위의 사례들이 모두 대종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남선이 『소년』에서 대황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단군의 이칭으로 치부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년』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단군 지칭어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10년대 최남선의 단군 인식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원단군교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나아가 『소년』에서 확인되는 최남선의 표상 변화의 새로운 요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II. 최남선의 단군 지칭어 변화와 대황조단군성신의 대두

1. 『소년』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남선이 출판한 『소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 최남선은 신문관(新文館)을 통해 1908년 11월부터 1911년 5월까지 통권 23호의 『소년』을 발행하였다. 이 잡지는 최남선이 거의 혼자 집필한 것으로, 창간호는 6명, 2호는 14명에 그쳤으나 1년 후 200명 정도의 독자가 생기는 등²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소년』이 청년학우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가능했다.²¹⁾

『소년』의 폐간 이후 최남선은 1913년 1월 1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붉은 저고리』, 4월에 『새별』, 9월에는 『아이들보이』 등을 창간하였으나 각각

16) 환순, 『우리 한군 인민의 종족 이름을 변명함』, 『대한매일신보』, 1910.05.11., 1면.

17) 『단군대황신영적수탐』, 『경남일보』, 1912.01.06., 3면.

18) 『단군대황조성탄절』, 『권업신문』, 1912.11.10.,

19) 『十月三日대황조단군하라버님의 성탄을 봉축함』, 『신한민보』, 1917.11.29., 3면.

20) 최남선, 『제1기기념사』, 『소년』 제2년 10권, 1909.11.1., 5~7면; 최남선, 『편집실통기』, 『소년』 제3년 2권, 1910.2.15., 91~92면.

21) 권두연, 『신문관 출판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253면.

1915년 1월 통권 16호, 1914년 9월 6일 지령 13호로 끝났다.²²⁾ 하지만 『붉은 저고리』는 이천 부 정도가 판매되었고, 『아이들보이』에 고정적으로 투고하는 독자 인원이 500명이 넘는 등 큰 호응이 있었는데, 최남선은 이렇듯 『소년』의 폐간 이후에도 여러 잡지를 발간하며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독자층을 확보해가고 있었다.²³⁾

뒤이어 최남선은 1914년 10월 1일에 본격 종합 교양지인 『청춘』을 창간하였다. 그런데 이 잡지도 1918년 9월 통권 15호로 강제 폐간되었다. 『청춘』 역시 『소년』과 같은 종합 교양지를 표방하였으며, 최남선, 이광수, 현상운, 진학문 등 여러 필진들이 참여하였다.²⁴⁾ 이렇듯 최남선은 『소년』을 시작으로 여러 잡지들을 출간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시대적 인식을 끊임없이 표명하고 있었다. 이 중 『소년』에서 단군이 언급된 텍스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소년』에 수록된 단군이 언급된 텍스트 목록

번호	권호수	날짜	제목	유형
1	소년 1년 2권	1908-12-01	지도의 관념	논설
2	소년 2년 1권	1909-01-01	既往己西史	연표
3	소년 2년 10권	1909-11-01	단군절	창가
4	소년 3년 2권	1910-02-15	태백산시집	시가
5	소년 3년 3권	1910-03-15	海上大韓史(11)	논설
6	소년 3년 5권	1910-05-15	(소년시언)國民思行의 標準	논설
7	소년 3년 5권	1910-05-15	太白에(國風)	시가
8	소년 3년 5권	1910-05-15	또皇靈(國風)	시가
9	소년 3년 6권	1910-06-15	(소년시언)『少年』의 既往과 및 將來	논설
10	소년 3년 6권	1910-06-15	(青年學友會報) 青年學友會의 主旨(五)	논설
11	소년 3년 6권	1910-06-15	海上大韓史(12)	논설
12	소년 3년 8권	1910-08-15	(소년시언) 祖上을 爲해(唱歌)	창가

22) 전영표, 『육당 최남선의 출판행위와 《소년》지 연구』, 『출판잡지연구』 12(1), 출판문화학회, 2004, 14면.

23) 권두연, 앞의 논문, 254면.

24)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제편』,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32면.

13	소년 3년 8권	1910-08-15	조선사사람인 청년들에게 [이광수]	논설
14	소년 3년 8권	1910-08-15	국사사론 [신채호의 독사신론 수정본]	논설

필자는 『소년』에서 단군이 언급된 14개의 텍스트를 확인하였다. 이광수의 논설(번호 13)과 신채호의 독사신론(讀史新論)을 수정하여 수록한 국사사론(國史私論)(번호 14)을 제외하면, 총 12개의 텍스트에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텍스트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군에 대한 지칭어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소년』 1년 2권 『지도의 관념』에서 ‘단군개국 사천이백사십일년’²⁵⁾, 『소년』 2년 1권 『기왕기유사』에서 ‘단군사십이년(서력기원전일천삼백삼십년) 대동에 군장이 잇슨 후 최초의 기유년이라’²⁶⁾라는 서술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여러 매체에서 흔히 사용하던 단군 기년의 관념이다.

단군 기년에 대한 인식은 1899년부터 신문과 잡지에서 확인되며, 《황성신문》은 1905년부터 단군 기년을 고정적으로 기술하면서 단군 기년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²⁷⁾ 따라서 『소년』에서 단군 기년을 사용한 사례(번호 1, 번호 2)는 당시 역사의 기원을 단군으로 소급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1909년 11월에 발행된 『소년』 2년 10권의 첫 장 창가 『단군절(檀君君節)』(번호 3)에서 성조(聖祖), 대주재(大主宰)라는 용어가 사용되더니, 1910년 2월에 발행된 『소년』 3년 2권(번호 4)부터 단군 대신 대황조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는 『소년』 3년 8권(번호 12)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청춘』에서 대황조를 사용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즉, 단군 지칭어의 변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다.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왜 최남선은 1909년 11월부터 단군을 대황조나 대주재 등으로 지칭하였을까. 최남선이 『소년』 2년 10권의 첫 장에 『단군절』을 수록한 것은 11월에 있을 원단군교의 개극절(開極節)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25) 최남선, 『지도의 관념』, 『소년』 제1년 2권, 1908.12.01., 15면.

26) 최남선, 『既往己西史』, 『소년』 제2년 1권, 1909.01.01., 62면.

27) 박성혜, 『근대계몽기 단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73~76면.

것이 타당하다. 먼저 1909년 1월 15(음)에 원단군교가 공포되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7월부터 신문에 본격적으로 실리기 시작하였으며,²⁸⁾ 1909년 11월 15일(음, 10월 3일)에는 단군대황조의 4241회 개국절 기념식이 나철의 집에서 열렸기 때문이다.²⁹⁾ 두 번째, 원단군교의 공포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미쳤던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북학회월보』에 기사를 썼던 노의서는 서북지방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단기(檀箕), 4천년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다가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단군교가 알려진 이후³⁰⁾ 개국입극(開國立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단군의 역사를 설명한다.³¹⁾ 이때 개국입극이라는 용어는 원단군교의 개국절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단군절」 수록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조선광문회의 인사들이 주로 대종교 신자였고, 최남선, 권덕규 등이 조선광문회를 통해 대종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²⁾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최남선은 원단군교의 단군교 공포 이후, 개국절을 기념하기 위해 『소년』의 첫 장에 「단군절」 가사와 악보를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단군절」에서 대주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이후 수록된 텍스트에서 대황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공포되었던 원단군교와의 관련성 아래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황조’의 배타성을 고려한다면, 원단군교에서 인식한 대황조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최남선이 『소년』 2년 10권 이후에 사용한 대주재, 대황조와 같은 용어는 본래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어휘였을까.

2. 국조이자 신인 대황조단군성신

대황조가 단군을 가리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대황조라는 단어는 원단군교에서 단군을 가리킬 때 쓰던 용어 중 하나로, 1909년 1월 15일

28) 박성혜, 앞의 논문, 166면.

29)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09년 11월 20일, 「開國日慶祝」;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0일, 「경축연회」; 『황성신문』, 1909년 11월 21일, 「開極節紀念」

30)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1일, 「檀君教弘布」

31) 『서북학회월보』 15, 1909년 8월 1일, 「국민적 주의」(梅溪盧義瑞)

32) 오영섭, 앞의 논문, 100~110면.

(음) 단군교의 창립 당시에 공포되었다고 하는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이하 포명서)』³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군교포명서』는 단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㉔ 금일은 우리 대황조단군성신의 4237회 개극입도의 기념일이라. (중략) 옛 날에 우리 대황조계읍서 천명을 받으시고 단목영궁에 강림하사 끝이 없는 조화로 지극한 도를 펼치시며 큰 땅덩어리를 통치하실새 북서로 북쪽의 사막부터 외진 땅과 남동으로 망망한 바다의 모든 섬까지 신의 조화가 천하의 백성을 감화하여 영향을 주고 공덕이 넘치시니³⁴⁾

㉕ 세조조에 이르러 대황조 위판에 특서하여 조선시조단군지위(朝鮮始祖檀君之位)라 하시며 또 친히 마니산에 제천하사 보본의 성의를 특별히 표시하시나 국조의 모든 유자들이 대황조 신성의 사적은 말하되 공맹정주의 책에 치우치고 빠져 대황조 신성하신 가르침은 연구하지 못하였으며 공맹정주는 앞뒤에 앉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되 대황조성신이 양양하게 하늘에 있으신 줄은 알지 못하니 자국을 세우신 성조를 숭상하지 않으며 자신을 생육하신 성신을 공경하지 않으며 자기집을 수수(修守)하게 하신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들지 않고 다른 조상을 숭상하며 다른 신을 공경하며 다른 가

33) 『단군교포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중교총본사 편, 『대중교증광60년사』 1971, 77~152면; 김성환, 「종교 관련 필사본 『포명본교대지서(佈明本敎大旨書)』, 『단군학연구』 14, 단군학회, 2006; 조준희·유영인 편,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군교포명서』 따르면 이 내용은 1904년 10월 초 3일에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중교증광60년사』에 따르면 1909년 음력 1월 15일에 원단군교를 공포하면서 『단군교포명서』도 함께 공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언급을 종합해보면 『단군교포명서』가 1904년에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내용이 널리 유통된 것은 1909년 원단군교의 공포 이후에야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군교포명서』는 1909년 9월 이전에 이미 신문을 통해 그 내용이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한국보』에 수록된 『단군교포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09년에 공포된 『단군교포명서』는 1909년 9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신한국보』에 수록되었으며, 『신한국보』에 수록된 단군교포명서와 현전하는 단군교포명서의 기록을 대조하였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신한국보』는 『포명서』의 내용을 『제국신문』에서 베껴다고 적고 있는데, 이에 따라 1909년 9월 7일 전에 『포명서』가 『제국신문』에 먼저 수록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단군교포명서』의 판본과 성립 시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성혜, 앞의 논문, 62~63면).

34) 김성환, 앞의 논문, 197면. “今日은 惟我 大皇祖檀君聖神의 四千二百三十七回 開極立道之慶節也라 (중략) 昔我 大皇祖의 天命을 受히시고 檀木靈宮에 降臨하사 無極한 造化로 至道를 誕敷하시며 大塊를 統治하실시 北西로 朔漠窮壤과 南東으로 瀛海諸島까지 神化가 過存히시고 功德이 洋溢하시니(떠어쓰기 필자)”

르침을 받드니 어찌 이와 같은 이치에 거스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리오.³⁵⁾

인용문 ㉔에 따르면 대황조는 ‘대황조단군성신(大皇祖檀君聖神)’의 줄임말로, 대황조단군성신 대신 대황조나 대황조성신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렇다면 『포명서』에서 말하는 ‘대황조단군성신’은 어떤 의미일까. 『포명서』에는 대황조단군성신의 정의나 의미,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지만, ㉔와 ㉕를 통해 대황조단군성신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대황조단군성신의 가장 큰 특징은 성조와 성신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단어의 조어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대황조단군성신은 차례대로 대황조, 단군, 성신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합쳐진 용어이다. 여기에서 대황조는 단군의 국조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며, 성신은 단군의 신으로서 성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모든 특징이 포괄된 존재가 원단군교에서 말하는 단군이다.

그런데 『포명서』는 단군을 국조로서의 성격과 신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 존재로 파악하면서도, 이 중 특정한 자질을 강조하고 싶을 때 해당 단어의 일부만 사용한다. 인용문 ㉕는 조선의 유자들이 단군과 단군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겼다고 비판한다. 이때 단군을 대황조, 대황조성신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나라를 세운 존재인 성조, 나라의 사람들을 태어나고 자라나게 한 존재인 성신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대황조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즉 성조를 높여 부르는 어휘이고, 성신은 하늘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때 『포명서』에서 확인되는 단군 인식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전승되던 단군 인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삼국유사』 「고조선」조

35) 김성환, 앞의 논문, 2006, 199~200면. “世祖朝에 至호야 大皇祖位版에 特書曰 朝鮮始祖 檀君之位라 호시며 又親히 摩尼山에 祭天호사 報本의 誠意를 特表호시나 國朝諸儒가 大皇祖神聖의 蹟은 說호되 孔孟程朱의 書에 偏滯호야 大皇祖神聖호신 敎난 研究치 못호였시며 孔孟程朱난 在座後先한것가지 想호되 大皇祖神聖에 洋洋在上호신줄은 不知호니 自國을 建造호신 聖祖를 不崇호며 自身을 生育 聖神을 不敬호며 自家를 修守케호신 聖敎를 不奉호고 他的 祖를 是崇호며 他的 神을 是敬호며 他的 敎를 是奉호니 엇지 如此히 理에 逆호고 常에 乖호난 事가 有하리오(띄어쓰기 필자)”

에 서술된 단군 신화를 살펴보면,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별개의 인물이 고조선의 건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환인이 천명을 고지하면 환웅은 천명을 받고 땅에 내려와 웅녀와 결연을 통해 단군을 낳고, 단군이 그 천명을 구현하여 고조선을 건국한다. 이는 건국신화의 기본적인 체계인 파견자, 중개자, 실현자의 3기능 체계를 갖춘 구조이다.³⁶⁾

그런데 『포명서』의 경우, 환인, 환웅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단군은 건국주로서 역할과 만물을 생육하게 하는 자연의 이치를 인격화한 신으로서 역할을 모두 포괄한다. 인용문 ㉠에서 대황조단군성신은 ‘천명’을 받아 단목영궁(檀木靈宮)에 내려와 넓은 땅을 다스린다. 문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대황조단군성신에게 천명을 고지한 최고신과 이를 구현한 대황조단군성신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포명서』에서 드러난 성격은 문면에 숨겨진 최고신과 대황조단군성신이 있는데, 이때 대황조단군성신은 국조와 신이라는 두 가지 자질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포명서』가 공포된 후 일 년이 되지 않아 원단군교에서 공포된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檀君敎五大宗旨佈明書)(이하 오대종지)』³⁷⁾에도 대황조성신이나 대황조와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이때 대황조성신은 별다른 천명의 고지 없이, 홍수 이후 인류를 창조하고 삼천단부(三千團部)를 세웠으며, 인간 세계의 366사를 다스린다. 더불어 환인, 환웅, 왕검, 천신, 천왕, 천군과 같은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이칭으로 간주된다.³⁸⁾ 요컨대, 원단군교의 초창기 텍스트인 『포명서』와 『오대종지』를 통해 보았을 때, 대황조단군성신은 『삼국유사』 『고조선』에서 확인되는 환웅, 단군의 기능이 수렴된 존재이자, 국조와 신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 신격이다. 그리고 대황조단군성신에서 특정 자질을 강조할 때 단어의 일부분인 대황조나 대황조성신을 사용하여 국조 혹은 신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36)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288~289면.

37)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는 1909년 12월 1일에 ‘대교(大敎)이님의 실천 강령’으로서 발표되었다고 하며, 1910년부터 원단군교도들 사이에서 유통되었다. 현재 한중연의 필사본, 건국대의 유인본, 『社寺宗教』, <大敎敎·檀君敎ノ件>(1911)의 뒷부분에 적힌 필사본이 전한다. 본고는 한중연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중연본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성혜, 『근대계몽기 단군 이야기의 상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54~62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 3면.

이렇듯 국조나 신으로서의 성격이 대황조단군성신이라는 한 신격에 포괄되는 것은 근대계몽기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되었던 단군 인식과 비교했을 때 더욱 특이하다. 근대계몽기의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단군 신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1895년 교과서의 경우 조선시대에 단군을 신인(神人)으로 간주하던 흐름을 수용하였다가, 1900년대부터 단군을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간(人)으로 서술한 사례가 있다.³⁹⁾ 즉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군 신화의 탈신화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⁴⁰⁾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의 한편에서 원단군교는 ‘국조’로서의 단군 인식과 ‘신’으로서 단군 인식을 한 신격 안에 포괄하고 그 중 강조하고자 하는 속성에 따라 관련 단어만 추출하여 단군을 지칭한다. 이는 단군신화의 재신화화로도 볼 수 있으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⁴¹⁾ 원단군교에서 재신화화했던 단군은 조선시대에 단군을 ‘신인’으로서 간주하던 관념과 당시 단군을 ‘인간’으로 간주하던 흐름을 모두 종합하여 신으로서의 단군으로 흡수해버리는, 마치 기왕의 단군 인식의 흐름을 모두 종합한 저수지와 같은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III. 『소년』에 드러난 대황조와 대황조의 영

『소년』에서 대황조라는 어휘를 통해 단군을 지칭한 시기는 1909년 11월 1일부터 1910년 8월 15일까지이다. 『소년』이 최초로 정간을 당한 것이 1910년 8월호이므로 원단군교의 공포 이후 『소년』이 최초로 정간을 당하게 된 잡지까지, 최남선은 단군에 대한 지칭어를 대황조나 대황조의 영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최남선은 이 단어들에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었을까. 이 지칭어는 과연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과 얼마나 호응하고 있었을까.

39) 박성혜, 앞의 논문, 43~54면.

40) 조현설, 『근대계몽기 단군 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화사연구』 32, 민족문화사연구소, 2006, 13~18면.

41) 조현설, 앞의 논문, 2006, 24~28면.

1. 태백산에 내려온 국조로서 대황조

『소년』에서 대황조라는 용어는 1910년 2월 15일에 발행된 잡지에서 처음 등장한다. 『태백산시집』은 『태백산가(歌)』(其一), 『태백산가』(其二), 『태백산부(賦)』, 『태백산의 사시(四時)』, 『태백산과 우리』라는 다섯 개의 운문으로 구성된다. 이중 가장 처음에 배치된 『태백산가』의 1연에서 단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황조가 사용된다.

즐거움과 태평의 크나큰빛을

모든것에 골고로 난화주라신

하날숨을 뱃드신 우리 大皇祖

이世上에 오십애 네게로로다⁴²⁾

이 시에서 대황조는 ‘즐거움과 태평의 크나큰 빛을 모든 것에 골고루 나누주라고 하신 하늘의 명을 받든’ 존재이다. 이때 즐거움과 태평을 모든 것에 나누주는 것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을 말하며, 대황조는 ‘하늘의 명을 받아’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한다. 그리고 이 대황조가 내려온 곳이 ‘너’ 즉 태백산이다.

여기에서 홍익인간이라는 천명을 실현한 대황조는 『포명서』의 대황조와 그 용어 및 개념이 일치한다. 이때 단군 대신 대황조를 사용한 것은 세 가지의 근거에 따라 최남선의 의도적인 배치로 볼 수 있다. 먼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백산시집』 이전에 최남선은 ‘단군개국’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최남선은 기존에는 단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황조로 그 용어를 바꾼 것이다. 두 번째로 『태백산시집』이 『소년』 제3년 2권의 권두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소년』에서 시는 권두시, 산문 내의 삽입시, 독립시 중 하나의 형태로 게재되는데, 권두시의 경우 해당호의 계몽적인 내용이나 지식을 대리 표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⁴³⁾ 『소년』 제3년 2권의 권두시인 『태백산시집』의 첫 번째 시가 『태백산가』인 것을 고려하면, 최남선은 『소년』 제3년 2권에서 의도적으로 원단군

42) 최남선, 『태백산가』, 『소년』 제3년 2권, 1910.2.15., 2면.

43) 최현식, 앞의 논문, 2006, 135면.

교의 대황조를 강조하고 환기시키려는 목적 아래 『태백산가』의 1연에 흥익 인간을 구현한 대황조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백산시집』에서 『태백산가』(기일)를 제외한 나머지 4편은 『태백산가』를 상술하는 시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⁴⁴⁾ 『태백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4편의 내용 역시 민족의 정기이자 근원인 태백산에 대한 예찬으로 이뤄지는데, 이때 태백산이 예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1연의 내용, 즉 대황조가 천명을 구현하기 위해 내려온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소년』 제3년 5권에 수록된 시조 『태백에』에도 대황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太白에 솟이피니 富貴가 雙全이라,
大國民의 저린歷史 永遠도록 한갈갠다,
太皇祖 크신힘은 萬年無疆이로다.

太白에 비나리니 羣物이 滋生이라,
질거음과 불이지짐 들밭게 가득하다.
太皇祖 어지신화는 萬物均霑이로다.

太白에 달비최니 四海가 光明이라,
人間의 그믐밤이 이제부터 갓갓도다.
太皇祖 밝으신빛은 萬方普照이로다.

太白에 눈이오니 莊嚴할손 威容이라,
더러움과 奸慝함이 누라아니 屈服하리,
太皇祖 맑으신양은 萬邪皆滅이로다.⁴⁵⁾

『태백에』는 각 연의 종장에서 ‘太皇祖 ~~~은 萬~~~이로다’라는 구조를 반복한다. 이에 따르면 초장에서 형상화된 사계절의 변화는 차례대로 대황조의 크신 힘, 어지신 교화, 밝으신 빛, 맑으신 모양과 같은 속성을 재

44) 최현식, 앞의 논문, 2007, 273면.

45) 『太白에(國風)』, 『소년』 3년5권, 1910.05.15., 45면

현하는 자연물이 된다. 여기에서 ‘대’황조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을 강조하는 ‘대’황조로 바뀐다.

주지하듯 최남선은 『소년』 제3년 5권부터 8권까지 자유시·산문시, 창가, 시조(국풍)으로 3분하여 율격 실험을 진행하였다.⁴⁶⁾ 『소년』에서 최남선은 시조를 통해 계몽의식을 전달하였는데, 태백과 대황조를 찬양하고 심미화할 때나 개성, 평양, 압록강 등을 탐방하면서 약소민족의 비애와 역사의 무상함 등을 표출할 때 시조가 사용되었다.⁴⁷⁾

이렇게 본다면 최남선이 『태백산시집』이나 『태백에』에서 언급한 대(태)황조는 단순하게 단군의 이칭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최남선에게 시조의 선택이 전략적이었던 것처럼, 대황조라는 용어 역시 원단군교의 영향 아래 대황조단군성신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조어였다. “태백과 대황조, 대조선의 심미화는 무엇보다 민족의식과 애국주의의 고양을 위한 것이었다.”⁴⁸⁾는 평가의 이면에는 민족의식과 애국주의의 고양을 가능하게 했던 토대로서 원단군교와 이를 통해 개념화된 대황조단군성신이 있었다.

대황조단군성신이라는 함의 아래 국조로서 대황조를 강조하는 태도는 최남선의 산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황조’라는 단어가 확인되는 산문은 「해상대한사」, 「(소년시언) 국민사행의 표준」, 「(소년시언) 『소년』의 기왕과 및 장래」, 「(청년학우회보)청년학우회의 주지(5)」이다. 먼저 「해상대한사」에 나타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살펴보자.

[歷史上功績] 우리 半島의 歷史는 本土 民族의 建國의 天才와 國民의 特長을 發揮함으로부터 始初하니, 檀君朝鮮의 建設當時로 말하면 이 世界가 거의 다 野蠻草昧人의 所有오, 겨우 한팔한발이나마 文明에 드러노흔 者는 이집트·支那와 및 印度의 兩三處뿐이라. 그런데 우리 半島에는 그제부터 或 그 以前부터 이의 文明의 程度가 國家=制度=君長을 必要할만큼 進歩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이집트인은 王의 무덤을 爲하여 쓸대업시 쌈을 얹기지 아니할때에, 그는 이러한 虛스된 일에 努力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크게 人生에 便益한 것이오 또 有國의 大政인 山川을 奠하고 道路를 築하난것갓흔 民生을 安하난 事業에 쌈을 흘넛

46) 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215~232면.

47) 최현식, 앞의 논문, 2007, 277면.

48) 위의 논문, 278면.

스며, 아시아中原으로서 印度로 내려온 아리아人種은 아직도 五河地方에서 土民들과 統治權을 다퉴때에 그는 이미 驅逐할것은 驅逐하고 屈服할것은 屈服하여 自己집안은 靜穩하기 바람업난 봄사바다갓히 만들어놔코, 安만하여도 걱정이 되난 四方海口, 곧 半島中部의 배곶갓히 생긴 江華에 外寇의 侵入을 防禦하기에 큰 勢力되난 城을 營建하여 마음을 穩준히 外禦에 쓸만큼 內部の 秩序가 整頓되얏스니, 이 맺가지만 보아도 그제 文化의 어대만큼 發達된 것을 推想할것이오, 傳하되 檀君은 神人갓히 太白山檀木下에 出現하얏것을 國인이 奉立하야 君을삼 았다하니, 그 以前에도 各自離散하여 종작업시 居生한것이 아니라, 이미能히 信하고 能히 和햏야 한 團體를 이루었다가 忽地에 이러한 英特한 人物을 만나매 얼른 君長으로 推戴할만큼 그 社會의 基礎가 確實한것이 分明하고, 또 한번 세운뒤에는 그제 形便으로 千有餘年 長久한 동안을 上下相孚하야 지내엿스니, 國民으로 必要한 性格이 具備하얏슴도 分明하매⁴⁹⁾

(전략) 이를 政治上으로 보건댄, 大皇祖제부터도 이미 政治의 根本義를 가장 받으며 알고 또 行하야 世界에 類가 업난 治安의 社會를 만들었스니 (중략)「善을 하기는 쉽고 惡을 하기는 어려운 世上」은 그의제에 한번 잇서보앗스며,⁵⁰⁾

『해상대한사』는 최남선이 “소년의 해사(海事)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편술한” 것으로 삼면이 반도인 지리적인 특성을 토대로 앞으로 대한이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산문이다. 『해상대한사』는 『소년』의 창간호부터 총 12회 수록되었다. 대황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해상대한사(11)』과 『해상대한사(12)』이다. 위 인용문은 <태동(泰東)에 처한 우리 반도 기왕의 공적>이라는 제목 아래 서술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단군 조선이 세워지던 시기에 조선 반도는 이미 국가와 군장이 갖춰질 만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으며, 단군 조선을 세운 ‘그’, 즉 단군이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자 국민들은 단군의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산천을 정하고 도로를 갖추고, 내부적으로 여러 경쟁자들을 굴복시키거나 내쫓아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고 강화도에 외적을 방비하는 성을 세웠다. 최남선은 여기에서 대황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군 조선’이라는 어휘와 그가 군으로 추대된 이후 보

49) 공육(公六), 『해상대한사(11)』, 『소년』 제3년 3권, 1910.3.15., 46~48면.

50) 공육(公六), 『해상대한사(12)』, 『소년』 제3년 6권, 1910.6.15., 38면.

여주는 행적을 통해 ‘그’로 지칭한 인물이 국조로서의 단군을 의미한다는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때 대황조가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온 것, 그가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도로를 갖춘 것, 또한 대황조가 다스린 시기를 ‘선을 하기는 쉽고 악을 하기는 어려운 세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대종지』에서 설명하는 대황조의 행적과 유사하다. 『오대종지』는 대황조성신이 태백산 단목영궁에 내려와 인간의 366사를 다스리면서 팽오에게 명해 산과 물을 통하게 했다고 서술하고, 대황조가 다스리던 삼천단부는 권하지 않아도 선이 있고 징벌하지 않아도 악이 없던 사회로 형상화한다.⁵¹⁾ 이렇게 『오대종지』와 『해상대한사』의 서술을 함께 살펴보면, 최남선이 단군 조선을 세운 국조의 행적을 서술하고 평가할 때 대황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행적들은 『오대종지』에 형상화된 대황조의 행적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해상대한사』에 서술된 내용이 모두 『오대종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대황조가 태백산 단목 아래로 내려왔을 때 국민들의 추대를 받아 군(君)이 된 것이나, 강화도에 성을 쌓았다는 내용은 조선 초부터 전승되던 내용으로 1900년도에 편찬된 역사교과서 등에서도 확인된다.⁵²⁾ 이렇듯 최남선은 당시 역사교과서에 수록되거나 널리 알려진 단군 신화의 내용에 더해 원단군교의 관점에서 구체화된 단군 인식도 수용하여 단군 조선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최남선은 『태백산시집』이나 『해상대한사』의 사례에서 보듯, 단군 대신 대황조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며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하여 『소년』에 수록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태백산시집』이나 『태백에』와 같은 시에서 대황조를 숭고화된 신격체로서 재신화화한 것으로 보고, 『해상대한사』에서는 근대 역사학의 실증 담론을 통해 대황조를 계몽군주의 이미지로 만들어 탈신화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⁵³⁾ 이러한 평가는 자칫 최남선이 단군 표상의

51)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 『단군교오대종지포명서』, 3면. “大皇祖神聖, 持天符, 及三印, 屢年臨於于太白山檀木靈宮, 應天度, 主治人間三百六十六事, 命彭吳導山導水 (중략) 大皇祖, 開極立道, 後六十年, 三千團部之一族, 親接撫字顧復之恩, 心性, 情, 之直元, 粹美, 居, 衣, 食, 之制作, 完具在洋洋和氣之中, 不勸而有善, 不懲而無惡, 只用報善之賞, 不用懲惡之罪, 大皇祖, 欣喜, (앞글자의 대황조 신성은 대황조성신의 오기로 판단하여 대황조성신으로 번역함)”

52) 박성혜, 앞의 논문, 46면.

53) 최현식, 앞의 논문, 2007, 277면 각주 38면.

신화화와 역사화 사이에서 문학적 형상화의 지향이나 장르별 차이에 따라 단군을 민족의 표상으로서 다양하게 형상화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지면 최남선은 운문에서 단군을 재신화화하거나 산문에서 단군을 탈신화화하거나 역사화한 것이 아니다. 최남선은 대황조를 통해 대황조단군성신의 ‘국조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이는 운문에서 대황조라는 단어가 단군조선의 발상지인 태백산과 함께 나열되는 점, 『해상대한사』에서 단군 조선의 정치적 특징을 강조하고자 할 때 대황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소년시언) 국민사행의 표준』, 『(소년시언) 『소년』의 기왕과 및 장래』, 『(청년학우회보)청년학우회의 주지(5)』에서도 대황조단군성신의 국조로서의 특성을 강조하려고 할 때 대황조가 언급된다.

『소년시언』은 『소년훈』, 『현대소년의 신호흡』과 함께 ‘소년’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윤리와 덕목들을 설파하는 장이었다.⁵⁴⁾ 이중 최남선은 『국민사행의 표준』에서 국조로서의 대황조를 호명하고 대황조의 정신, 대황조의 시대를 강조한다.

大抵 皇皇하신 大皇祖의 巍巍하고 莊嚴한 抱負는 天柱와갓히 우리 歷史上에 特立하얏스니 제때의 快치못한일은 곳 개아미한두머리가 이기등에 古여올은 세 음이오 (중략) 厥初에 大皇祖의 業을 朝鮮의 나라를 세우심에 이것으로써 抱負를 삼으시고 事業을 삼으셨난데 (중략) 오즉 무슨 생각과 무슨 일이던지 恒常 標準을 大皇祖의 大徑輪에 對하야 必要한가 아니한가에 들지라 곳 正義의 擁護者되고 至善의 努力者되난데 合當한것인가 아닌가를 살혀서 그러하면 하고 그러치아니 하면 말것이니라. (중략) 우리 朝鮮國民의 思와 行의 標準은 오즉 거룩하신 大皇祖의 業을 처음 나라를 세우시던 그 精神과 그 抱負라. 은제던지 무슨일에던지 이것을 거울하고 이것을 貫革하야 이를보고 反省하고 이를 향하야 邁往할지니라, 아아 幸福이로다 우리는 남이 가지지못한 至高至大한, 至剛至正한 標準을 가졌도다.⁵⁵⁾

위 인용문은 『국민사행의 표준』의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최남선은

54) 최현식, 앞의 논문, 2006, 140면.

55) 최남선, 『(소년시언) 국민사행의 표준』, 『소년』 제3년 5권, 1910.5.15., 13~15면.

생각과 행동의 표준으로 대황조께서 나라를 세우시던 정신과 포부를 언급한다. 이 정신과 포부는 아름다우신 대황조의 위대하고 장엄한 포부이며, 역사의 흥망에 관계없이 대황조가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로 지금까지 보유했고 전수된, 높고 크며 굳세고 바른 정신이다. 여기에서 대황조의 포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만, 이 내용은 아마도 앞서 살펴본 『해상대한사』에서 언급된 정치적 특성과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례는 『청년학우회보』에 실린 최남선의 『청년학우회의 주지』라는 논설에서도 확인된다. 최남선은 ‘대황조 이래의 국민적 이상’⁵⁶⁾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시조로서 단군을 강조하려는 의도 아래 대황조를 사용한다.

2. 만물의 양육자이자 신으로서 대황조의 영

최남선은 『소년』의 여러 텍스트에서 국조로서 대황조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국조로서의 대황조와 더불어 신으로서 성격을 강조하며 대황조의 ‘영’이나 ‘대주재’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한다.

史記를 들어보니 두눈이 恍惚하다,
거룩한 일과사람 만흔들 저리만하,
그러릇 光榮하움도 또皇靈이샀다.

疆土를 둘러보니 理相界가 여기로다,
山高水麗 한덩이에 모든 것이 다足하니,
저러릇 福樂하움도 또皇靈이샀다.

人物을 살펴보니 남달르게 할만하다,
얼골엔 誠이나고 몸엔가득 힘이로다.
이러릇 俊秀하움도 또皇靈이샀다.

위 인용문은 『소년』 제3년 5권에 수록된 시조이다. 앞서 살펴본 『태백에』에 이어 최남선은 『또황령』을 배치한다. 이 역시 세 개의 시조가 연이어 배

56) 최남선, 『청년학우회보』, 『소년』 제3년 6권, 1910.6.15., 75면.

치된 연시조이다. 각 연들은 각각 조선의 빛나는 역사, 수려한 강토, 위대한 인물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로 ‘황령(皇靈)’을 제시한다.

이때 각 연의 종장에 배치된 “그/저/이러듯 ~하옵도 또황령이샀다”라는 구절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의 종장인 “이몸이 ~하옵도 역군은이샀다”를 끌어온 것이다.⁵⁷⁾ 이렇듯 최남선은 『태백에』와 『또황령』을 연이어 배치하여 전자에서 태백에 미친 대황조의 힘과 교화, 빛과 마음을 예찬하고, 후자에서 훌륭한 역사를 가진 수려한 강토 안에서 준수한 인물이 가득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상화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황령을 제시한다. 이때 황령은 시간과 공간, 인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신(령)의 보우하심과 관련된다. 앞서 『포명서』와 『오대종지』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신으로서 단군은 인류를 창조하고 사람들의 생육에 관여한다. 따라서 최남선은 이를 고려하여 『또황령』에서 국조로서 대황조가 아닌 대황조의 ‘영’ 즉 신으로서 대황조의 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소년』의 기왕과 및 장래』에서 기원의 대상, 즉 신으로서의 대황조를 드러낸다. 최남선은 이 글에서 자신이 『소년』을 발행한 동기와 『소년』의 포부 및 장래 등을 언급하면서 이 글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다만 바라노니 不時的 暴風雨가 피여가난 꽃과 님새를 搖落하지말지어다. 또 가장 逃脫하기 어려운 孔萬의 그물이 우리를 후려서 기름가마에 집어넣치아 니하도록 **우리**

大皇祖의 聖靈이 顧佑하소서. 이는 新大韓의 일흥으로 비난바올시다.

鍛鍊한 鐵腕과 醞酵한 事爲慾! 우리는 여러분과 한가지 마조막까지 다 하리라.⁵⁸⁾

최남선은 불시의 폭풍우가 피어나는 꽃과 님새, 즉 소년의 포부와 장래를 흔들어 떨어트리지 않도록, 유교가 소년을 기름가마에 집어 넣지 않도록

57)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興이 절로 난다/ 濁醪 溪邊에 錦鱗魚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하옵도 亦君恩이샀다.(맹사성, 강호사시가, 『청구영언』(진서간행회본))

58) 최남선, 『(소년시인) 『소년』의 기왕과 및 장래』, 『소년』 제3년 6권, 1910.6.15., 24면.

대황조의 성령이 돌보아달라고 신대한의 이름으로 빈다. 이때 신대한의 이름으로 비는 형식은 기독교의 기도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것을 전유한 것이다. 이는 대황조의 성령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기도 행위가 ‘문명’의 방식으로 포장된 신성한 행위로 간주되도록 만든다.

또한 이는 내용적으로 『포명서』의 유교관과 호응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포명서』는 조선의 폐해로 사람들이 유교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자국의 성조와 성신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최남선 역시 소년들이 ‘공만의 그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대황조의 성령에게 기원한다. 이처럼 대황조의 성령이 드러난 구절은 매우 짧지만, 그 방식과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원의 대상이자 신인 ‘대황조의 성령’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듯 1910년 5월 15일에 발행된 『소년』 3년 5권에서 황령이 언급된 후, 다음 달에 발행된 『『소년』의 기왕과 미 장래』에서 대황조의 성령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두 달 후에 발행된 『소년』 3년 8권 『조상을 위해』라는 창가에서도 대황조의 영이 언급된다.

1. 榮光에찬오랜歷史아래에나고
幸福에된조흔邦土위에서살미
생각하라우리들이무슨功이노
聖神하신大皇祖의威靈이신저⁵⁹⁾

여기에서 조선은 영광에 찬 역사를 가진 곳이자 행복하고 좋은 땅을 가진 곳으로 형상화된다. 이어서 이상적인 역사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신성하신 대황조의 위령 덕분이라고 노래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포명서』의 주제와 상통하는 것으로 3개월 전의 ‘황령’이 ‘대황조의 위령’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최남선은 『해상대한사(12)』에서 단군 조선의 종교상 특징을 서술하면서 대주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9) 최남선, 『祖上을 爲해(唱歌)』, 『소년』 제3년 8권, 1910.8.15., 15면.

이를 宗教上으로, 보건던 우리 民族은 實노 世界人類中 가장 먼저 一神敎의 眞理를 靈覺한 者니, (중략) 헤브류人을 앞서기 千餘年前에 우리 錦繡 半島 神聖 民族의 놀날만한 直感直覺이 벌서 唯一至能의 大主宰가 있어, 이 天地間 모든것이 다 그 攝理밧헤 잇슴을 알고 그의 얼은이 人民을 다스릴 때엔 반드시 天意를 探하고 天意를 覺한뒤에 하얏스며, 그뿐 아니라 헤브류人의 神을 섬기는 道로 말하면 神의 가장 실허하시난바 殺生을 짐짓 行하야 犧牲으로써 神에게 드리니 마 음보다 物件이 암서서 銑物써 諛諛를 드리난것갓호거늘 우리 先祖는 처음부터 오즉 純潔한 精誠을 祭物노 하야 이로써 祭祀하고 이로써 祈禱하얏스니, 대개 말하건댄 달은 族屬들이 다 自然을 놓히고 偶像을 절할 때엔 맨먼저 오즉 한아이 신 하느님의 품에 안김이 참놀날만하며, 또 헤브류 人에 比하여 말하더라도 그 보담 먼저 길 닐흔 羊을 免하얏슬뿐아니라, 가장 神의 뜻을 잘 알고 또 잘 行하얏슴을 보건던 果然 驚歎할밧게 업스며⁽⁶⁰⁾

최남선은 단군 조선의 종교를 당시 서양 문명 발달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와 비교한다. 이에 따르면 헤브루인보다 ‘가장 먼저’ 일신교를 깨달은 자가 우리 민족이며, 우리의 선조는 ‘유일지능의 대주재’, 즉 ‘오직 하나이신 하느님’이 천지의 모든 일을 운행하며 인민을 다스릴 때 ‘하늘의 뜻(天意)’에 따라 행하는 것을 알고 제물로 순결한 정성을 바치며 신의 뜻을 잘 알고 행하였다.

여기에서 최남선은 ‘대주재’나 ‘하느님’과 같은 용어를 통해 신적 존재를 지칭한다. 사실 대주재라는 단어는 최남선이 원단군교의 단군을 지칭할 때 이미 한 차례 사용한 바 있다. 최남선은 『소년』 2년10권의 첫 장에 창가 「단군절(檀君節)」의 가사와 악보를 수록하였다. 이때 1절과 4절의 가사가 다음과 같다.

곳은마음 한갈갓흔 各方사람이

우리聖祖 크신밧헤 모여드러서

아모거나 갓히하자 盟誓하던날

깃뵈므로 노래하야 頌祝함시다.(1절)

60) 공육(公六), 『해상대한사(12)』, 『소년』 제3년 6권, 1910.6.15., 37~42면.

(중략)

大主宰의 압해나와 恭遜히엿디여어린아해 마음으로 精誠드려서

처음으로 하늘길을 開拓하던날

깃뵈므로 노래하야 頌祝합시다.(4절)⁶¹⁾

최남선은 『단군절』 기념 노래에서 ‘성조(聖祖)’와 ‘대주재(大主宰)’를 사용하며, 대주재 앞에서 공손히 엿드려서 정성을 드렸던 날을 송축하자고 노래한다. 1절의 각방 사람들이 성조의 밑에 모였다는 점에서 성조는 태백산에서 단군 조선을 연 국조로서의 단군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4절의 대주재는 신으로서의 자질을 강조하는 어휘이다. 대주재 앞에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공손히 엿드려 정성을 드리는데, 이는 앞서 『해상대한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신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최남선이 해방 이후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미발표 원고 <역사적 입장에서의 대중교 개관>⁶²⁾에서 “동방인민의 우주 주재신을 부르는 『붉은』(Bårkan)”, “조선계의 오랜 전승에 거하건대, 태고에 인간이 화난에 빠졌을 때 광명계 주재신의 一子이신 환웅”⁶³⁾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듯 최남선은 ‘주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을 지칭하며, 이는 대황조단군성신에서 ‘성신’의 속성을 강조할 때도 동일했다.

61) 『檀君節』, 『소년』 제2년 10권, 1909.11.01., 3면.

62) 최남선, 『육당최남선전집』 9, 현암사, 1974, 286면. 이 원고를 최남선이 해방 이후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최남선의 단군사면론, 불함문화론 등에 보이는 서술이 이 원고에서 확인되며, “대종교단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국성 파괴정책에 반항하면서, 국내외를 통하여 민족투쟁의 정신적 지주로 오늘에 이른 것은 따로 누설을 요치 않을 바이다.”라는 문장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남선이 1940년대에 건국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서술은 해방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이 1920년대 중반에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한 논의도 있다(이영화, 앞의 논문, 2002).

63) 최남선, 『육당최남선전집』 9, 현암사, 1974, 284면.

IV. 원단군교 단군 인식의 전유를 통한 낭만적 민족주의의 구성

지금까지 『소년』에서 사용된 단군의 지칭어의 용례를 확인하였다. 최남선은 『소년』 2권 10권부터 단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대신 대황조나 대황조의 영, 대주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대황조단군성신의 함의를 드러냈다. 동시에 국조로서의 특성을 강조할 때는 대황조를, 신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할 때는 대황조의 영이나 대주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최남선의 원단군교 단군 인식의 전유 양상은 단군 지칭어의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 윤영실은 『소년』에서 민족의 고유명으로서 ‘조선’이 강조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최남선이 대중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김교헌의 『신단실기』에서 민족의 고유명으로 배달을 제시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 민족의 고유명으로서 ‘조선’의 대두를 최남선의 특성으로 간주한다.⁶⁴⁾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황조는 원단군교의 공포 이후부터 1910년 8월에 간행된 『소년』까지만 사용된다. 이렇듯 최남선이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하여 대황조와 대황조의 영을 구분하였다면, 단어의 선별 사용 이외에 드러난 다른 특징은 없을까. 이때 민족의 고유명으로서 조선을 사용하는 것이 주목된다.

실제로 『포명서』에는 조선에 대한 언급이 적혀있다.

檀君朝 中葉에 倍達國이라 稱호 語가 漢字의 字義字音으로 轉變호야 朝鮮이 되앗시니 古語에 謂祖曰 倍오 謂父曰 比오 指光輝之物曰 達이라호니 祖父光輝를 被한 四表土地라 호야 國號를 建한 바인즉 倍達은 卽 祖光이라. 漢士史筆이 外國國名에 險字를 用함은 慣例라 況祖字를 用하리오 祖를 以音으로 譯之호야 朝字가 되고 光輝를 以義譯之호야 鮮자가 되여시니 至今까지 赫赫한 古名이 吾人口頭에 尙存한 者난 倍達木이라 함은 大皇祖光輝木이며 太白山이라함은 大皇祖山이며 (倍之爲白亦漢字之通音) 溟江이라함은 大皇祖江이오(鴨綠江古稱溟江, 溟亦倍字之通音)一國의 主君을 稱호디 任儉이라함은 大皇祖聖諱에 出한바이니⁶⁵⁾

『포명서』는 단군조 증엽에 조상의 빛(祖光)이라는 의미의 배달국이 한자

64) 윤영실, 앞의 논문, 91~93면.

65) 김성환, 앞의 논문, 201면.

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조선(朝鮮)으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고어에 조상을 배(倍)로, 빛나는 물건을 달(達)로 말했으며, 배달에서 조(祖)의 음만 번역하여 조(朝)가 되고, 광휘의 뜻을 번역하여 선(鮮)자로 바뀌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조선은 조부의 광휘를 입은 사방의 토지, 즉 조상의 빛(祖光)의 의미를 가진 배달이 와전된 것이다. 즉, 『포명서』는 배달국의 의미를 조부의 광휘를 입은 사방의 토지라는 뜻으로 확실하게 하고, 이 단어가 조선으로 변천된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한다. 더불어 배(倍)가 조상의 고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태백산은 본래 대황조산의 의미로, 압록강의 고어인 패강은 대황조강의 의미로 간주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10년 5월에 발간된 『소년』의 「국민사행의 표준」에 조선국민, 조선동포, 조선민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것,⁶⁶⁾ 1910년 8월에 발간된 『소년』에서 이광수가 대황조단군을 호명하며 4243년 전부터 조선민족이란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⁶⁷⁾ 최남선과 이광수가 원단군교에서 공포되었던 『포명서』에 서술된 배달국에 대한 이해를 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이라는 고유명이 확인되는 시기가 『소년』에서 단군, 태백이라는 표상이 대두되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최남선이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한 사실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지적된 최남선의 일련의 변화, 즉 ‘바다에서 산으로’⁶⁸⁾, ‘신대한국에서 대조선으로’⁶⁹⁾의 변화가 가능했던 원인을 밝혀준다. 특히 「초등대한지리교본」에서 조선을 ‘호조건을 구비’한 ‘이상계’로 미화하는 것이나 최남선이 「해상대한사」의 후반부에서 갑자기 그 논조를 바꾸어 반도에 위치한 조선을 인류 최초의 유일신교 발상지로 간주하는 것도⁷⁰⁾ 원단군교에서 향유되었던 『포명서』에서 드러난 단군 인식을 전유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상대한사(12)」와 「초등대한지리교본」이 각각 1910년 4월과 6월에 출간된 『소년』에 수록된 점도 그러하거나와 『포명서』에서 대황조단군성신

66) 윤영실, 앞의 논문, 89면.

67) 孤舟, 「조선사람인 청년들에게」, 『소년』 제3년 8권, 1910.8.15., 30면.

68) 정한모, 『한국 현대사문학사』, 일지사, 1974, 201~209면.

69) 최현식, 앞의 논문, 2006, 133면.

70) 윤영실, 앞의 논문, 97면.

이 강립하여 다스린 나라는 끝이없는 조화로 지극한 도를 펼치고 신화(神化)와 공덕(功德)이 넘치는 이상세계로 간주하는데,⁷¹⁾ 이 대황조단군성신의 가르침인 본교(本敎)는 4천 년 동안 이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⁷²⁾

그리고 『소년』에 드러난 조선민족의 서사가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창조-타락-회개-구원의 플롯을 갖춘 전형적인 종교 서사의 형태를 띠는 것도⁷³⁾ 『포명서』의 종교관과 상통한다. 『포명서』는 본교의 성쇠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된다고 보아 나라를 세워주신 성조를 숭상하지 않고, 자신을 생육하신 성신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집을 세우신 성교를 받들지 않은 것이 결국 대황조성신의 복리(福利)와 덕음(德音)을 막아버리고 결국 지금과 같이 쇠약해진 상태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⁷⁴⁾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대황조성신의 본교를 정성으로 숭봉하는 것은 단순히 대황조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화액을 복으로 바꾸는 작업이 된다. 이렇듯 『소년』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를 살펴보면, 단군의 지칭어뿐만 아니라, 표상의 변화나 민족 서사의 구조 속에서도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한 흔적이 드러난다.

그리고 단군을 국조이자 신으로 인식하며 그 차이를 지칭어를 통해 드러내는 최남선의 특징은 『청춘』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국조로서의 대황조는 ‘단군’으로, 신으로서 대황조의 영은 ‘한배’로 지칭된다. 대황조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단군과 한배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때 『청춘』에서 지칭하는 단군과 한배 역시 그 기저에 원단군교 및 대종교의 단군 인식이 내포되었다는 점에서 『소년』에서 포착된 단군 인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남선의 단군 인식이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먼저 최남선 역시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에 호응하면서 자신의 단군 인식을

71) 김성환, 앞의 논문, 197면.

72) 김성환, 앞의 논문, 200면.

73) 윤영실, 앞의 논문, 98~99면.

74) 김성환, 앞의 논문, 200면. “自國을 建造하신 聖祖를 不崇하며 自身을 生育하신 聖神을 不敬하며 自家를 修守케하신 聖敎를 不奉하고 他的 祖를 是崇하며 他的 神을 是敬하며 他的 敎를 是奉하니 엇지 如此히 理에 逆하고 常에 乖한 事가 有하리오 至仁至慈하신 大皇祖聖神의 不肖子孫을 對하사 災殃을 降하야 一時에 殄滅하기난 不忍하시나 福利를 普錫치안 이하시며 德音을 宣布치안 이하시니 今日的 支離漸盡에 屢劣衰弱함이 若是도다”

구체화해 나갔기 때문에, 『소년』에 대한 평가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존 논의에서 최남선이 조선을 민족의 고유명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대종교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대종교와 ‘조선’이라는 민족명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고유명 ‘조선’이 부각되는 장면에는 항시 최남선이 개입”⁷⁵⁾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대종교와 조선이라는 민족명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대종교 2대 교주인 김교헌의 『신단실기』(1914)에서 민족의 고유명으로 배달을 강조한 것을 지적한다.⁷⁶⁾ 그러나 『신단실기』의 출간은 원단군교가 대종교로 그 이름을 바꾸며 교단이 정비된 이후에, 또한 『소년』의 폐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남선은 『포명서』에 서술된 조상의 빛(祖光)이라는 의미의 배달국의 의미를 전유하며 『소년』에서 조선을 새롭게 조명한다.

또한 『소년』에서 대조선 표상이나 민족명으로서 조선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소년』의 단군이 탈신화화와 재신화화를 넘나들고 있”⁷⁷⁾는 것으로 평가한 논의도 있다. 물론 『소년』의 대황조는 단군의 국조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어휘이다. 그러나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에 따르면 정치적 대황조와 종교적 대황조성신은 결국 대황조단군성신의 이칭이며, 최남선 역시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단군을 다양한 표현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그의 단군 표상이 탈신화화와 재신화화를 넘나들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 시기에 최남선의 단군 표상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대황조단군성신’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역사적 존재로서의 단군과 신적 존재로서의 단군은 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이다. 즉, 최남선에게 단군은 역사적 존재이자 동시에 신적 존재이며, 이 둘 모두는 대황조단군성신에 내재된 속성이기에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두 번째, 최남선의 단군 인식이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했다는 것을 밝힌 본고의 논의는 이후 최남선의 단군론의 변모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 연구에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75) 윤영실, 앞의 논문, 92~93면.

76) 위의 논문, 92면.

77) 최현식, 앞의 논문, 2007, 277면.

단군민족주의에서 일선동조론으로, 대동아공영론으로 변화했던 최남선의 단군론의 변화 양상을 두고 그 원인을 최남선의 단군은 애초에 “정치적 수장이면서 종교적 사제였고, 역사적 존재이면서 문화적 존재였고, 개인이면서 보편적 존재였다”고 평가하며 그 이원성을 지적한 바 있다.⁷⁸⁾ 이를 본고의 논의 결과와 견주어 살펴보면, 최남선은 애초에 국조로서의 단군과 신으로서의 단군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다. 즉, 원단군교의 대황조단군성신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신적 존재로서의 단군 인식이 만약 1920년대, 30년대를 거쳐 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최남선이 단군의 특정 자질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의 단군 표상이 이원적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계고차존』에서 드러나는 보통명사 단군과 1920년대의 최남선의 단군론에서 포착되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존재로서의 단군⁷⁹⁾의 간극은 그의 단군론의 ‘변화’라기보다 큰 틀에서 그의 단군 인식의 ‘일부’를 역사적, 종교적 학문의 맥락에서 ‘과학적’인 언어로 구성해 낸 작업일 수도 있다.⁸⁰⁾

마지막으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이 원단군교 즉 종교적 서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낭만적 민족주의의 구성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남선의 작업은 18세기 유럽의 낭만주의 흐름 속에서 성서 독해에 기반을 두고 인류의 단일한 본향을 상상한 것⁸¹⁾과 유사한 점이 있다. 특히 헤르더가 민족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단일한 것으로 보고 이미 민족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파악했던 것처럼,⁸²⁾ 최남선은 여러 텍스트들을 통해 결국 민족의 동일성의 기준으로 문화를 제시하고 고대 조선 민족이 완성된 시기를 구현⁸³⁾함으로써 본향을 상상했다.

사실 『포명서』에서 대황조단군성신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땅의 경계는

78) 이영화, 앞의 논문, 2002, 35면.

79) 이영화, 위의 논문, 18, 28면.

80) 물론 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춘』을 비롯하여 1920년대에 집필한 최남선의 단군론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년』에서 포착되는 단군 인식이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초창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81) 브루스 링컨, 『신화이론화하기』, 이학사, 2009, 105면.

82) 김완균, 『J.G. 헤르더의 ‘민족 Nation’ 개념 이해』, 『독어교육』 39,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7, 196~199면.

83) 김현주, 앞의 논문, 250~251면.

매우 모호하다. 북서쪽으로는 북방 사막에 다다르고 남동쪽으로는 영해 여러 섬도 포괄한다.⁸⁴⁾ 『포명서』가 이렇듯 모호한 강역을 상징하는 것은 이 텍스트가 애초에 대황조단군성신의 가르침을 숭봉하려는 목적 아래 구성된 종교적 서사이기 때문이다. 『포명서』는 당대에 향유되던 단군 신화에 서술되던 강역의 경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자손의 계보를 구체화하지도 않는다.⁸⁵⁾ 그러나 『포명서』에서 대황조단군성신의 다스림은 확실하며, 이 다스림은 대황조의 자손으로 이뤄진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고, 이 이상향의 재경험은 본교의 숭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낭만주의자들이 국가주의와 세계주의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느님의 교회와 나라를 신비적 공동체로 여겼던 것과⁸⁶⁾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포명서』에 드러나는 종교적 서사로서의 특징은 이후 원단군교가 대종교로 변화하면서 달라졌다. 『신단실기』에서 보듯 대종교는 단군을 ‘신인’으로 간주하고 단군의 역사성을 강화하려는 목적 아래 단군의 치적을 강조하고, 계보를 구체화하는 등 조선의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다양한 서사들을 추가해나갔다.⁸⁷⁾ 이 강역과 계보의 신빙성은 현재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들은 이후 대종교도들이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상상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소년』에 드러난 최남선의 단군 인식은 원단군교의 『포명서』에서 보이는 종교적 서사의 특성인 보편성과 낭만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듯, 그의 주조해내는 단군 표상은 선언과 설득의 수사는 될지언정 그 구체성은 결여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이후 출간된 최남선의 여러 논설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상대한사』, 『계고차존』(1918), 『조선역사통속강화』(1922-3), 『조선역사강화』(1930)에서 문화 개념과 시대 구분선이 조정되어도⁸⁸⁾ 민족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문화라는 관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체성이 결여된 그 자리는 『불함문화론』(1927)과 같이 단군의 영향력의 범위가 넓게 확

84) 김성환, 앞의 논문, 197면.

85) 박성혜, 앞의 논문, 43~53면.

86) 김진, 『칸트, 헤르더, 낭만주의』, 『인간연구』 1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194면.

87) 박성혜, 앞의 논문, 98~113면.

88) 김현주, 앞의 논문.

장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소년』에 드러난 그의 단군 인식이 이후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1910년대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확인하려는 시도로 『소년』에 수록된 단군 관련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단군 지칭어를 확인하고, 이를 원단군교에서 향유되었던 『단군교포명서』와 비교함으로써 해당 단어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최남선이 원단군교의 대황조단군성신을 전유하여 대황조와 대황조의 영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태백산에 내려온 국조로서의 단군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황조를 사용하였으며, 만물의 양육자이자 신으로서의 단군을 강조할 때는 대황조의 영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소년』에서 민족명으로서 조선을 강조하는 것, 창조-타락-회개-구원과 같은 민족 서사를 구현하는 것도 최남선의 원단군교 단군 인식의 전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

『소년』에서 드러나는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확인하는 본고의 작업은 기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소년』에 드러난 특징들이 본질적으로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을 전유한 데에서 기인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조선광문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적된 최남선과 대중교의 관련성이 실제 그가 구성한 텍스트에서도 드러나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나아가 원단군교의 단군 인식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최남선이 원단군교의 대황조단군성신을 전유하여 단군 표상을 구성했다는 본고의 논의는 『소년』의 단군 표상에 대한 기존 논의를 재고하게 하며, 이후 전개되었던 최남선의 단군론에서 확인되는 보편성이 그의 초창기 단군 인식부터 내재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1910년대 최남선의 단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잡지인 『청춘』은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소년』(역락, 2001)

『권업신문』

『경남일보』

『단군교포명서』

『단군교오대중지포명서』

『대한매일신보』

『서북학회월보』

『신한민보』

『신단실기』

『황성신문』

대종교총본사 편, 『대종교중광60년사』, 1971.

조준희·유영인 편, 『백봉전집』, 역사공간, 2017.

최남선, 『육당최남선전집』9, 현암사, 1974.

2. 단행본

권보드레 외, 『『소년』과 『청춘』의 창』, 이화여대출판부, 2007.

권오만, 『개화기시가연구』, 새문사, 1989.

진성곤, 『육당 한국학을 찾아서』, 동서문화사, 2016.

_____, 『日帝下文化ナショナリズムの創出と崔南善』, J&C, 2005.

정한모, 『한국 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74.

조현설,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지성사, 2003.

최현식, 『최남선·근대시가·네이션』, 소명출판, 2016.

브루스 링컨, 김윤성 역, 『신화이론화하기』, 이학사, 2009.

3. 논문

권두연, 『신문관 출판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0, 한국 문학연구학회, 2010, 221~263면.

- 권보드레, 『근대 초기 민족개념의 변화』,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188~212면.
- 김성환, 『대종교 관련 필사본 「포명본교대지서(佈明本敎大旨書)에 대하여』, 『단군학연구』 14, 단군학회, 2006, 155~210면.
- 김완균, 『J.G. 헤르더의 ‘민족 Nation’ 개념 이해』, 『독어교육』 39, 한국독어독문학과 육학회, 2007, 183~207면.
- 김진, 『칸트, 헤르더, 낭만주의』, 『인간연구』 1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173~207면.
- 김현주, 『문화사의 이념과 서사 전략-1900-20년대 최남선의 문화사 담론 연구』, 『대동문화연구』 5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221~247면.
- 류시현, 『한말 일제 초 단군과 고조선 인식의 체계화』, 『한국사학보』 61, 고려사학회, 2015, 173~197면.
- 류준필, 『1910-20년대 초 한국에서 자국학 이념의 형성과정』, 『대동문화연구』 5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35~61면.
- 문성환, 『최남선의 글쓰기와 근대 기획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성혜, 『근대계몽기 단군 이야기의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오영섭, 『조선광문회연구』, 『한국사학사학보』 2, 한국사학사학회, 2000, 79~140면.
- 윤설희, 『최남선의 고시조 수용작업과 근대전환기의 문학인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윤영실, 『‘국민’과 ‘민족’의 분화-『소년』지에 나타난 ‘신대환’과 ‘대조선’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79~114면.
- 이영화, 『최남선의 단군론의 전개와 그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5, 한국사학사학회, 2002, 5~39면.
- 장만호, 『한국 근대 산문시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전영표, 『육당 최남선의 출판행위와 《소년》지 연구』, 『출판잡지연구』 12(1), 출판문화학회, 2004, 3~21면.
- 전용숙, 『1910년대 최남선 잡지 서사의 근대적 가치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정영숙, 『<개교차준>을 통해 본 최남선의 고대사론』, 『규장각』 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2, 161~203면.
- 조현설, 『근대계몽기 단군 신화의 탈신화화와 재신화화』, 『민족문학사연구』 32,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0~32면.
- 최현식, 『‘신대환’과 ‘대조선’의 사이 (1)』,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131~169면.

최현식, 『‘신대한’과 ‘대조선’의 사이 (2)』, 『민족문화사연구』 33, 민족문화사연구소, 2007, 255~283면.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대동문화연구』 4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221~260면.

Choi Nam-seon's perception of Dangun in *Sonyun*
- Focused on Adoption of Dangunyo's Perception of
Dangun in *Sonyun* -

Park, Seong-hye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nges in the terms used to refer to Dangun in the text 'Sonyun'. The analysis of this paper reveals that Choi Nam-seon adopted Dangunyo's perception of Dangun. In *Sonyun*, Choi Nam-seon consciously distinguished "the spirit of Daehwangjo", the founder and god of all things, from the actual figure Daehwangjo, who descended onto Taebaek Mountain. In addition, the emphasis on "Joseon" as the name of the n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narrative akin to a religious narrative are also examples of the writer's adoption of the Dangunyo perception of Dangun. The findings of this paper regarding Choi Nam-seon's perception of Dangun as revealed in *Sonyun* are important in that they confirm that the different terms used for Dangun in *Sonyun* are the result of Choi Nam-seon's adoption of the Dangunyo perception of Dangun. This analysis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reveals that the universality of Choi Nam-seon's Dangun theory was inherent to his early Dangun perception.

Keywords: Choi Nam-seon, *Sonyun*, Dangunyo(檀君教), Daejonggyo(大倮教), Dangun, Daehwangjo(大皇祖), Spirit of Daehwangjo, 1910's

접수일자: 2023. 3. 31.
심사기간: 2023. 4. 1.~2023. 5. 10.
게재결정: 2023. 5. 10.